

# 조경수목 산책 40

## 낙우송



**임경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 내가심은 낙우송 수원농대 구내 1980

### 1. 사라진 낙우송

낙우송(落羽松)은 미국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우리나라에는 20세기 초반에 그것도 이른 초반에 들어와서 심어진 것으로 안다. 내가 낙우송을 처음 본 것은 1937년 경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초등학교(당시로서는 보통학교라 말했다.)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대구공립농림학교로 진학을 했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서 농림학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나를 담임하고 있던 선생님의 권유로서 진학한 것이지 기호에 따른 선택진학은 아

니었다. 그것도 대구농림학교에는 당시 농과와 임과로 갈라져 있었는데 임과를 공부하게 된 것은 당시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의 뜻이었다 따라서 임학을 공부하게 된 것은 시초에 있어서 완전히 타의에 의한 것이지 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대구농림학교로 말하면 1910년 3월에 설립된 학교로서 우리나라 중등 정도의 농업교육 또는 농림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였다. 1910년이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순종 4년에 해당하고 그해 8월29일은 한일합병이 된 부끄러운 역사의 시대였다. 말하자면 대구공립농림학교가 설치되고 난 뒤 약 다섯 달 후에 한일합병이 된 것이다. 그때 대구공립학교를 뒤이어서 농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몇몇 학교가 창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몇몇 학교가 창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학교는 농업에 관한 기술을 중등교육의 수준으로서 가르친 것이고, 농림학교라 하면 1학년에 일반과목을 과하고 2학년이 되면 조림과 삼림보호를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4학년부터는 완전히 임업전공과목을 교육한 것이다. 4학년부터는 임산제조라든가 목재이용, 사방공학 등의 전공과목이 교육되었다.

이에 반해서 농업학교에 있어서는 2학년때 임업대의(林業大意)라는(지금으로 말하면 임학개론에 해당하겠지만) 과목을 교육하고 임업에 관한 다른 교육은 없었던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농업학교는 많이 설립되었지만 농림학교는 그 수가 무척 적었다. 공업학교나 상업학교에비해서 농림계통의 중학교육이 강조된 것은 당시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준다.

내가 대구농림학교에 입학할 때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았으나 공을 들인 아담한 수목원이 있었다. 2학년 때 수목학이 과해졌는데 그 때 실습으로서 우리는 여러 번 선생님과 함께 이 수목원을 찾았다. 이 수목원에는 당시로 보아 신기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것도 무척 큰 나무들이었다. 그 중에 당시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루브라참나무라는 외국 참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필자의 눈에는 너무나 크고 오래된 것으로 비춰졌다. 루브라참나무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거무스레한 줄기의 빛깔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옆에는 몇그루의 낙우송이 서 있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당시 그곳에 5~6그루 정도의 낙우송이 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나무 역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래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눈에 비쳤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속에서 있었던 낙우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심어진 나무였다고 생각된다. 수고와 흉고 직경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무척 오래된 나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낙우송의 시조였음이 분명했다.

수원에 있는 수원농림학교(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또는 수원농림전문학교)에 오래된 낙우송이 서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수원에 있는 낙우송과 대구농림학교의 수목원에 있는 낙우송은 그 크기와 오래됨에 있어서 비슷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초기에 들어온 낙우송은 몇몇 그루는 수원에 그리고 몇몇 그루는 대구농림학교 수목원에 심어진 것으로 안다. 줄기는 곧았고 결가지는 고루 사방으로 많이 났지만 그 굵기가 그다지 굵지 못했으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낙우송이었다. 우리는 당시 이러한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 그것도 큰 나무를 접할 때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무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하고 어떠한 감격같은 것도 가져본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대구농림학교 입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이 타의였다고는 하지만 감사하고 잘했던 것으로 느껴졌다. 6.25사변 도중 목조건물이었던 대구농림학교는 화재로 전소하고 말았다. 그래서 대구농림학교의 역사가 이때부터 변천을 거듭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 수목원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따라서 낙우송이라든가 루브라참나무라든가 멋진 모습을 보였던 히말라야시다라든가 이러한 나무들은 개발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녹화라든가 나무는 생명의 환경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왜 이 나무들을 남겨두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꾸며 나가지 못했는가 한탄스럽기만하다. 똑똑하고 현명한 인간이었다면 이곳의 낙우송과 다른 큰 나무들은 남겨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낙우송 그것이 사라진 것은 무엇보다도 안타깝기 한이 없다. 그곳의 낙우송은 내가 본 처음의 낙우송이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초기에 심어진 가장 오래된 낙우송이었는데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나무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다. 그 나무들은 기념물감이었다.

나는 며칠전 대구농림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이 낙우송이 자취를 감추게 된 과정에 대한 사연을 알고 싶었지만 어떠한 시원스러운 설명은 듣지 못했다. 누구나도 그 나무가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없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 [추기]

이 원고의 집필을 완료하고 나서 필자는 그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대구농림학교 동창회로 전화를 했다. 대구농림학교에서 27년간이나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그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서 계시는 장인환선생님께 낙우송과 루브라참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나무는 이제 모조리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고 하더니 사무국장의 말로는 루브라참나무와 한 그루의 낙우송은 남아있다는 것이다. 어느편



▲ 내가심은 낙우송 수원농대 구내 1992. 9



▲ 낙우송의 잎



▲ 인면도의 낙우송 1976. 11

가 대구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담아볼 것을 마음먹고 있지만 어느날에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다. 일단 낙우송과 루브라참나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필자는 반겨마지 않는다. 이 나무가 그 뒤 높이에 있어서 즐기직경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람을 했는지 또 어떠한 상황으로 이 나무가 보존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 나무가 만일 살아있다면 필자에게 나무의 정기를 불어넣어준 생명의 실체가 그곳에 존재하는 셈이다. 보기 전부터 미리 마음설레임을 금할 수가 없다.

## 2 수원역의 낙우송

내가 두 번째로 큰 낙우송을 보게 된 것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구내에서였다. 이 학교 구내에는 큰 낙우송이 있었고 대구농림학교의 낙우송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오래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두 낙우송의 크기는 비슷했던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서는 비슷한 때 낙우송의 묘목이 수원으로 대구로 나누어져서 식재된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나는 수원에서 이 낙우송의 구과가 가을이 되면 나무 아

래에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긁어 모아서 묘포장에 파종하여 묘목을 양성하였던 것이다.

낙우송 묘목양성은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곰팡이가 낙우송의 뿌리를 좋아해서 잘 긁어먹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을까지는 잘 자라던 낙우송 묘목이 봄이 되면 말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았더니 곰팡이가 그 뿌리를 갉아먹은데서 오는 피해로 알 수 있었다.

낙우송의 묘목의 뿌리는 직근성이고 굵고 육질이라 곰팡이로 보아서는 가장 먹을 만한 그러한 땅속 식량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낙우송의 양묘에 있어서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토양살충제를 치고서 양묘하였다. 그랬더니 양묘의 효과가 좋아졌었다.

당시 상당한 수의 낙우송의 묘목이 양성되었지만 아직도 이 나무의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나무의 묘목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 나는 여기서 양묘된 낙우송의 묘목을 두 그루가 농과대학

구내에 심었다. 여기에 여름철에 찍은 사진은 1980년쯤의 것이고 잎이 떨어진 광경은 1992년 4월에 찍은 사진이다. 사진으로 보아서는 어느 정도의 자람을 했는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나무의 자람은 건강한 편이었고 자람의 속도도 빨랐다.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 낙우송은 어디까지나 나의 손으로 양묘되고 나의 손으로 식재된 것이 분명하다. 이 나무의 식재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나는 뒤에 수원농과대학의 캠퍼스를 찾을 때 이 나무를 보고 내가 심을 당시의 광경을 생각해 보았다. 1992년 이후에 찍은 사진은 낙우송의 수형을 잘 말해준다. 실루엣이 말이다. 어느 정도 낙우송은 낙엽송과 메타세콰이에 많이 닮아있지만 줄기가 곧고 결기지가 고루 사방으로 가늘게 발달해서 정돈된 아담한 수형을 갖추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 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가 만들어지고 그 때 그곳의 조경수목식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많이 참여했다. 그 당시에 관악캠퍼스 뒤쪽 산기슭에 알맞은 땅을 골라 낙우송을 여러 그루 식재한 적이 있다. 나는 이 낙우송의 식재성고가 어떠한가하고 근래 그곳을 찾았지만 식재지점을 알지 못해서 낙우송식재성고를 알 수 없었던 것은 무척 안타까웠다. 기회가 있으면 그곳을 다시 찾을 때가 있겠지만 내가 심은 낙우송의 집단이 무럭무럭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 3 안면도의 낙우송

내가 찍은 슬라이드 모음에 안면도 낙우송이라는 것이 있다. 촬영일자는 1976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여간 큰 나무가 아니다. 당시의 나이가 30년 쯤으로 본다면 광복이 되자마자 이내 심어진 나무였던가 아니면 제2차대전 직전에 심어졌던 낙우송으로 짐작된다. 이 나무가 이곳에 심어지고 자라나게 된 역사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수형이 아담하고 우리나라 낙우송 식재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록에 남길 만하다. 그 뒤에 나는 여러 번 안면도를 찾았고 그때마다 행여나 이 낙우송을 다시 만날까해서 살펴봤지만 나는 이 낙우송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아직도 나는 이 낙우송이 살아남아서 잘 자라고 있기를 기원한다. **2014**



▲ 신주꾸교엔의 낙우송 기근 1960. 5